

5/22/22

설교 제목: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2장 13-25 절

- (요 2: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절관주** 신 12:5, 신 16:6, 말 3:1
- (요 2: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 (요 2: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 (요 2: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 (요 2: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절관주** 시 69:9
- (요 2: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 (요 2: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절관주** 마 26:61, 막 14:58
- (요 2: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 (요 2: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 (요 2: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절관주** 눅 24:8, 요 14:26, 시 16:10
- (요 2: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 (요 2:24)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 (요 2:25)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성전을 두 번 청결케 하셨는데 한 번은 본문에 기록된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였고 또 다른 한 번은 공생애를 끝내시면서 였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와지자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요 2: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꼭 지켜야 할 삼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무교절) 칠칠절(맥추절 오순절) 초막절(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출 23:14)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출 23:15)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 23:16)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 23:17)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인성을 취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성전은 상인들로 북적거리 마치 시장 바닥을 방불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노하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하십니다.

(요 2: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요 2: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요 2: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안에 있는 양이나 소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각자 형편에 따라 소나 양 비둘기 등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데려온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오는 동안 사고가 나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병이 드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돈을 가져와 성전에서 짐승을 사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신 14:22) 너는 마땅히 매 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신 14:23)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 14:24)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신 14:25)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신 14:26)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제도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제도를 악용하여 각각
자신들의 이익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상인들에게 성전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권을 팔아 돈을 챙겨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대제사장이 가져갔다고 보아야 하지요.

또한 상권을 사느라 돈을 낸 상인들은 백성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폭리를 취했습니다.

가져온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했던 검사관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은 무조건 흠을
잡아 퇴짜를 놓고 성전 안에서 산 제물만 통과 시켰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도록 유도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얹으셨습니다.

20 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반 세겔의 성전세를 성전 세겔로 내야 했습니다.

당시 세겔은 일반 시장에 사용하는 것과 궁전에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 3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성전세는 반드시 성전 세겔로 납부해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전상을 통해 일반 세겔을 성전 세겔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환전상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일반 세겔을 성전 세겔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짓거리를 하는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을 얹으셨습니다.

물론 여기도 대제사장 대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성전 중에서 가장 바깥인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잡상인들이 소리치며 물건을 파는 시장 바닥이 되었던 것입니다.

돈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대제사장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오히려 백성들의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할 대제사장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합세하여 백성들의 피를 빨아 먹었습니다.

모두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 곧 돈을 찾아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것은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엉뚱한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세상적인 목적만을 이루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함에도 율법 정신은 아랑곳없이 각자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사욕만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구약의 한 말씀을 떠올립니다.

(요 2: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떠올린 말씀은 시편 69:9 말씀입니다.

(시 69:9)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 마치 다윗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있어 주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주의 전을 사모함이 다윗이 그러했던 것과 같다고 생각한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힘으로 과격하게 제지하지 않고 예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요 2: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이 악한 고로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대신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 2: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2: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 년을 걸쳐 지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황당해 했습니다.

“46 년을 지어도 완성하지 못한 성전을 3 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 2: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2: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자신의 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니까 건물만 생각했지 누구도 성전의 본질 영원한 성전이신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의 진의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며 표적을 행하시자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 2: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요 2:24)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요 2:25)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만약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면 언제든지 돌변하여 당신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던 웅장한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건물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인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자 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전 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전 6: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이 타락했다는 것은 건물이 낡고 더럽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가 오염되고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세상의 원리를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원리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삶 속에 만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 맘몬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 곧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들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